

---

## A Study on Ven. Bogak Iryeon's Worldview of Buddha Land, embodied in 'Gojoseon' section of 《SamgukYusa》

Jooheui Lee  
Jungwon University

### Abstract

Ven. Bogak (普覺) Iryeon(一然, 1206~1289) in the late Goryeo period is the author of 《SamgukYusa》, which has been steadily read. This article aims to contemplate about the authenticity of his religious aspect, for it was discussed superficially in former studies, and about the values he had pursued of in Buddha land. He lived through the period of severe military rule in 13th century when invasion of Mongol Empire and of Khitan had occurred. At the age of 31, of being appreciated with his monastic practice and devotion, he confronted the invasion of Mongol then dreaded dying. In reflection of his shallow liberation from life and death, he aspired to evacuate and chanted 'the spell of Manjushri(文殊五字呪)'. He had a responsive experience then was widely awakened. After the enlightenment, he struggled to practice in diligence to free all sentient beings from suffering. His devotion is emerged throughout the work of 《SamgukYusa》, and the consequence appears in 'Gojoseonjo'. His idealism of Buddha land is implemented by Hwan-in(the God of Heavens), Hwan-ung, a bear, and a tiger. Hwan-ung, after a discussion with his father(Hwan-in) to do 'Humanitarian ideal(弘益人間)', descended to human world, then became a selfless spiritual leader of all kinds of human race. Sentient beings, who are deficient and unsatisfied with reality, give effort to grow up for self-actualization. Iryeon eagered for the ideal Buddha land where everything is available by harmonizing their wish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he revaluation of the world that Iryeon had pledged to pray for and of the historic worth of 《SamgukYusa》. Awareness and cultivation of personality will be needed for pedagogues, who should comprehend educatees and encourage them to self-actualize, in the 21st century.

Key words : Iryeon, a spiritual leader, Hwan-in, Hwan-ung, helper, wish, faith, harmony

---

---

**Received** November 23, 2021 **Revised** December 15, 2021 **Accepted** December 15, 2021

**Author:** Jooheui Lee, Professor, Department of Religious Cultural Heritage, Jungwon University  
bog2duru@jw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구현된 보각국사 일연의 불국토 세계관 연구

이주희

중원대학교 종교문화재학과 교수

### 요 약

고려 후기의 고승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一然, 1206~1289)은 스테디셀러 《삼국유사》의 찬술자이다. 본고에서는 일연이 통찰한 깨달음으로 중생제도를 위해 노력했던 종교인임을 논했으며, 불국토가 구현된 세계와 그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13세기 무신정권과 몽골 침입의 극성기에 포산에서 은둔 수행했던 일연의 행적을 고찰하였다. 수행 정진에 뛰어나 칭송을 받던 31세의 일연은 몽골군이 목전에 온 상황에서 국난 타계를 염원하기 위한 피신처를 찾았다. ‘문수오자주(文殊五字呪)’로써 염원했으나 처음에는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는 의심과 분노, 좌절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부정(不淨)한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상(我相)을 깨는 절차탁마의 정진 끝에 감응 경험을 하게 되며 나아가 ‘생계(生界)가 불감(不滅)하고, 불계(佛界)가 불증(不增)’을 참구하여 활연대오하게 된다. 이러한 득도 체험이 그의 수행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중생구제를 위해 유력(遊歷)·저술·교화 등으로 실천 수행하며 종교지도자로 거듭난다. 그의 정진 수행의 모습은 《삼국유사》 전체를 관통하며, 그 수행의 귀결은 ‘고조선’조를 통해 나타난다. 불국토의 이상세계는 환인과 환웅을 통해 드러난다. 아버지 환인과의 의논을 통해 ‘홍익인간(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다)할 만한 땅’에 내려온 환웅은 무아(無我)로서 상·중·하의 중생을 재세이화로 제도하는 영도자,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결핍을 해소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올바르게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중생, 이들의 기원이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이 설 때 조화가 이루어지며 공존을 이룰 수 있는 세계가 곧 일연이 회구하는 불국토의 세계이며 그의 가치관이다. 본 연구를 통해 종교인 일연이 서원했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삼국유사》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진일보에 기여하길 바라며, 21세기 현재 우리는, 피교육자를 바르게 인식하여 자아실현하도록 복돋움의 역할을 할 교육자(영도자)들 자신의 각성과 인격도야에 주력할 때임을 전망(展望)한다.

주제어 : 일연, 종교 지도자, 환인, 환웅, 조력자, 염원, 믿음, 조화

## I. 서론

고려 후기 고승 보각국사 일연(普覺國師 一然: 1206~1289)과 그의 제자들이 찬술한 《삼국유사》에는 사라질 뻔했던 우리 민족의 시원 및 고대·중세 사회의 역사와 문화가 투영된 만큼, 그간 일연과 《삼국유사》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그중 다수의 논문이 선승(禪僧)으로서의 일연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 논하며 일연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으로 스펙트럼화했다.<sup>1)</sup> 하지만 내·외침의 극성기였던 고려 후기의 무간지옥과 같은 시절, 일연이 일국의 사표로 존경받고 있던 뻗속 깊이 종교인이며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일연의 생애에 대해 논할 때 논저마다 주관적으로 시기를 나누었지만 크게 변별되어 논란될 만한 점은 없다. 다만 시기 분기 문제가 아니라 일연의 생애 중 1236년부터 그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고는 일연의 생애를 종교인에서 종교 지도자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분기하고자 구도기·깨침기·저술 및 교화기 등 셋으로 나누었다. 즉 첫째, 구도기: 출생에서 승과 합격 시기(1206년~1227년) 둘째, 깨침기: 포산 은둔 수행 시기(1227년~1249년) 셋째, 저술 및 교화기: ① 남해 주석, 저술 시기(1249년~1260년) ② 사찰 교화 시기(1261년~1274년) ③ 국존 책봉 및 입적 시기(1275년~1289년)로 나누었다.

일연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둘째와 셋째 시기이다. 둘째 시기는 일연에게 있어서는 ‘깨침기’인 포산 은둔 수행 시기(1227년~1249년)로 무신정권의 난립과 특히 몽골의 침입이 극성기로 접어들 무렵 특히 1236~1249년 사이 일연이 병란을 피해 포산에 머물러 있었기에 ‘일연의 대응을 소극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그리고, 셋째 시기인 포산 은둔 이후 1249년부터 1283년 국존으로 책봉되기까지 일연의 행적이 정치성을 띠었다는 연구들이 있다.

일연의 포산 은둔 시기를 소극적으로 보는 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일연이 피지(彼地)할 때의 영험을 기록한 것으로 1236년 재조대장경을 간행하기 위한 대장도감(大藏都監)이 설치되고 백련사에서 승려 천책(天頌) 등이 백련결사문(白蓮結社文)을 반포한 것과 비교하면 일연의 소극적 면모를 나타내는 것이다(채상식, 2001: 128-129)”. “일연이 보당암이라는 작은 사찰에 머물렀던 것은 개경에서의 무신정권이 승정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

1) 일연의 사상과 관련한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1990년~2007년까지는 김상영(2009) 〈삼국유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세미나, pp.79-80 참조. 1991년~2017년까지는 명계환(2019) 〈보각국사 일연의 사상 일고〉 정토학연구 32, p.218 참조. 그 외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김태영(1974),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경희사학 5집. 이기백(1976),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창작과 비평. 김상현(1978),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 연구20. 한기문(2019), 〈일연의 삶과 생각〉, 삼성현역사박물관 학술총서3. 홍영의(2019), 〈일연의 불교계의 위상과 국존책봉〉, 삼성현역사박물관 학술총서3. 조정철(2021) 〈일연사상의 고유성과 특수성〉, 불교철학9.

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한기문, 2019: 12)”. “일연은 고려대장경이 조판되는 1236년~1249년 사이 병란을 피해 무주암에 머물렀다. 이 기간에 일연은 개인적인 수도에 머물렀고 많은 공부를 했겠지만, 사회적 대중적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조경철, 2021: 25-26)”.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전쟁의 현장에서는 승려 김윤후가 천민들과 함께 분기하고 있었고, 국가적으로는 고려대장경의 재판 작업으로 천책 등의 승려가 앞장서 있던 시기였기에 더욱 그렇게 보인다.

또한, 포산 은둔 이후 일연의 행보가 정치성을 띄었다는 연구들이 있다.<sup>2)</sup> 그 이유는 그 당시 최씨 무신정권의 일족이었던 정안과의 교류와 원종과 충렬왕의 부름에 응한 상경, 무엇보다 국사로 책봉된 것에서 그렇게 생각할만한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일연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학문적·피상적 접근법으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며, 이는 자칫 일연과 《삼국유사》에 대한 조각 맞추기, 즉 종합적 연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에 본고는 일연이 고려 후기의 백척간두와도 같은 시대적 상황을 대처 극복하기 위해 ‘때를 기약하며 소극적 행보가 아닌 질차탁마의 자세로 수행’했고, 정치를 이용하여 자신을 부각하고자 함은 없었다는 것, 즉 일연은 일평생을 유력(遊歷)·수행·저술·교화 등 끊임없이 정진했던 종교인이며 지도자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씨 무신정권의 전성기와 몽골의 침입 등 풍전등화 같던 시기에 포산에서 은둔 수도했던 일연의 수도 정진 과정을 심도 있게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일연의 불국토 세계의 표상인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살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연의 수도 정진 과정과 고조선조를 통해 일연이 말하고자 하는 교육적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각국사 일연이 13세기 고려 후기 중첩된 국난의 시기에 땅에 떨어진 민족정기를 되살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선도적 지식인이며 종교 지도자이자 교육자임을 깊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21세기 현재 가장 밝으면서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에 《삼국유사》라는 고전이 교육적 측면에서 좋은 지표가 되어 지혜의 등불로 재점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II. 일연의 수도 정진 과정: 포산 은둔기를 중심으로

주지하듯 현재까지 일연의 생애와 사상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자료나 기록이 거의 없는 편이다. 본고는 그의 중요 일대기를 기록한 비문과 그가 중심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찬술한 《삼

2) 채상식(1988), 〈일연〉, 《한국사 시민강좌》 2, 일조각, pp.118-119. 고운기(2010), 〈일연의 글쓰기에서 정치적 감각-삼국유사 서술방법의 연구〉, 《한국언어문화》 42 pp.5-30. 조경철(2021), 〈일연 사상의 고유성과 특수성〉, 《불교철학》 9, p.79.

국유사》를 기본자료로 한다.<sup>3)</sup>

서론에서 피력했듯이 일연의 생애를 종교인에서 종교 지도자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분기하여 구도기·깨침기·저술 및 교화기 등 세 시기로 나누었다. 본고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깨침기인 ‘포산 은둔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일연에 대한 의식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 시기 일연의 구도 자세를 고찰하면 깨치기 위해 정진하는 종교인 일연을 만날 수 있고, 이후 그의 행보에 대한 의구심도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다.

일연의 행적 중 깨침기에 고려 내부에서는 1219년부터 정권을 잡은 최우가 이부, 병부 및 승정(僧政)도 관할하며 권력을 휘둘렀고, 왜의 침입과 교역 요청이 있었다. 1231년부터 몽골의 침입이 시작되었고, 1232년(고종19)에는 강화도 천도에 대한 몽골의 2차 침입으로 현종조(顯宗朝) 거란과의 전쟁기에 제작된 부인사(符仁寺) 소장 대장경판이 소각되었다. 당시 처인성 부곡민들과 승장(僧將) 김윤후(金允侯)가 몽골 주력군의 총사령관 살리타(撒禮塔)를 사살하자 노기등등한 몽골군은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고 철군하게 된다.<sup>4)</sup> 이렇게 승려 출신의 김윤후는 몽병을 상대로 소수의 관노와 부곡민과 일치단결하여 1232년과 1253년에 걸쳐 두 번이나 크게 격퇴하였다. 분명 김윤후는 호법·호국하는 불교 수행의 한 모습이며 결연(結緣)한 영웅의 모습이였다.

1235년(고종22)부터 1239년(고종26)까지 몽골의 제3차 침입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1236년(고종23) 6월에는 대규모로 내침하여 북계(北界) 여러 지역을 점거하면서 서해도 지역까지 내침했다. 그리고 가을 7, 8, 9월 《고려사》세가 23에 기록된 몽골군의 내침 경로와 상황은 다음과 같다.

7월에는 몽골군이 개주(价州: 현 평안남도 개천시)로 쳐들어와서 고려군이 살상하고 군수품도 노획하였다. 장주(長州: 현 함경남도 정평군)와 정주(定州: 현 함경남도 정령군)에서 몽골군 두 명을 사로잡았다. 몽골 기병 20여 기가 자주(慈州: 현 평안남도 순천시) 동쪽 외곽에 침입해, 농민 20여 명을 사로잡아 모두 죽였다.

8월에는 몽골군이 자주를 함락시키고 부사 두 명과 판관 한 명을 살해했다. 몽골군 백여 명이 은수군(溫水郡: 현 충남 아산시)으로부터 남하하여 차현현(車懸峴: 충남 공주시)으로 향했다. 몽골군이 남경(南京)·평택(平澤)·아주(牙州: 현 충남 아산시)의 하양창(河陽倉) 등지에 진을 쳤다.

3)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인각사에 있는 일연의 비문은 민지(閔漬)가 짓고 문인 죽허(竹虛)가 왕희지의 글씨를 집자하여 1295년(충렬왕 21)에 세웠다. 일연의 편수로 알려진 문헌은 《삼국유사》를 포함하여 《중편조동오위》 2권, 《어록》 2권, 《개송잡저》 3권, 《대장수지록》 3권, 《제승법수》 7권, 《조정사원》 30권, 《선문염송사원》 30권 등이 있다. 이렇게 방대한데도, 현전하는 자료는 《삼국유사》와 《중편조동오위》 2권 뿐이다.

4) 《고려사》열전 16 ‘김윤후’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김윤후(?~?)는 고려 고종 때의 승장인데 본디 승려였고 백현원(白峴院, 현 경기도 평택)에 있었다. 1232년 처인성에서 몽골 장군 살리타를 죽인 공으로 임금이 상장군을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한다. 1253년(고종 40년)에 충주산성 방호별감(防護別監)으로 있을 때 몽골군이 성을 포위하고 70여 일을 공격했으나 군민이 일치단결해 성을 사수하고 이를 격퇴했다.

9월에는 몽골군이 온수군을 포위하자 군리(郡吏) 등이 성문을 열고 나가 싸워서 적을 대파하고 두 명을 목 베었다. 이 싸움에서 죽은 적군이 2백여 명이었으며 노획한 병기도 매우 많았다. 몽골군이 죽주(竹州: 현 경기도 안성시)로 침입해 항복을 권유했으나 송문주(宋文冑)가 힘껏 싸워서 적을 격퇴하였다.

1236년 가을 시기의 몽골 침략 경로는 위 기록에서 보듯 7월에는 함경도 평안도를, 8, 9월에는 경기도, 충남까지 거침없이 구락질하는 상황이었다.

일연의 생애에서 가장 중대한 전환은 바로 이 휘몰아치는 전란의 시기에 일어난다. 9세에 유출녹지(有出塵志)의 뜻을 품고, 14세에 득도(得度)한 8년간의 수학기를 거쳐, 1227년(고종 14) 22세에 승과 최고 고시인 상상과에 합격한 후 현풍 포산(현 비슬산) 보당암으로 거처를 옮기고 9년째 접어들고 있던 시기였다. 몽골군이 국토와 백성들을 유린하고 있는 가을, 당시의 일연을 살피고자 한다.

그 후 포산 보당암(寶幢庵)에 주석하면서 선관(禪觀)을 닦았다. ㉠ 병신년(1236) 가을에 병란(兵亂)이 있어 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문수(文殊)의 오자주(五字呪)를 염(念)하면서 감응(感應)을 기약하였더니, 홀연히 벽 사이에서 문수보살이 나타나 ‘무주북(無住北)’이라고 일러주었다. ㉡ 그다음 해 여름 포산 묘문암(妙門庵)에 거처하였다. 암자 북쪽에 난야(蘭若)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주(無住)이므로, 곧 전일 문수보살이 현신하여 기별함을 깨닫게 되어 이곳에서 항상 ‘생계가 불감(不減)하고, 불계(佛界)가 불증(不增)’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참구(參究)하다가 어느 날 홀연히 활연유오(豁然有悟)하고, 사람들에게 이끄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삼계(三界)가 꿈과 같음을 알고 보니, 대지에 터럭 하나 만한 장애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일연이 포산(5)을 수행처로 삼고 수도하고 있는데 ㉢ 단락에서 보듯 병란의 화마가 가을 8, 9월 경상도까지도 침입할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승장 김윤휴가 민중을 독려하며 분투 중이었고, 승려 천책(天頌)은 백련결사(白蓮結社)를 하고 있을 때였고, 최우는 재조대장경을 간행하기 위해 대장도감(大藏都監)을 설치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일연은 문수오자주를 염원하며 병란을 피할 장소를 찾고 있다.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짚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가 병란을 피할 장소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신정권의 암울함과 몽골 등의 외침으로 도탄에 빠진 민중의 고난을 등 뒤로 한 채 구도정진함이 개인 수행 및 영달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 행위를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연

5) 일연이 포산을 자신의 수행처로 삼은 주요 이유는 《삼국유사》〈피은〉 제8 ‘포산이성’조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포산에는 9성(九聖)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하며 관기, 도성, 반사, 접사, 도의, 자양, 성범, 금물녀, 백우사 등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는 포산을 영산이라고 꼽으며 ‘포산은 관기, 도성의 영감과 산신 정성천왕(정성천왕)의 도움으로 앞으로 천 명의 출가가 있을 자리’라고 하였는데 이런 기록으로 보아 그가 포산을 수행처로 삼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은 호국을 염원하기 위해 피지처를 찾고 있었고, 호국의 방법을 찾고 있었음에 분명하며, 그 피지처를 찾는 과정에서 일연에게는 ‘깨침’이 일어났다. 일연의 깨침의 과정에 그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불교는,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무신론적 종교이다.<sup>6)</sup> 즉, 불교의 교리의 핵심이라고도 할 사성제(四聖諦)에서 고(苦), 집(集), 멸(滅), 도(道)의 네 가지의 관념 형태는 어느 것도 인격신을 상정하지 않는다<sup>7)</sup>고 한다. 그러나, 불교의 곳곳마다 신이라는 이름 대신 수많은 불·보살들이 바로 신의 역할로서 깨침을 주고 있다. 《삼국유사》의 서사들에서 괴이(怪異)를 말하지 않고 신이(神異)를 이야기하고 있음이 그 예증이다.

일연 또한 불보살에 대한 존재를 믿고, 교리를 공부하며 그러한 신념으로 선관(禪觀)하고 있었기에 문수오자주를 염송(기도)하기 위해 기도처를 찾고 있다. 일연이 감응을 기다리며 빌고 있는 대상은 《삼국유사》에 자주 등장하는 복덕과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다.

그 문수보살의 ‘문수오자주’는 대장경의 하나인 금강정경유가문수사리보살법일품(金剛頂經瑜伽文殊師利菩薩法一品) 또는 오자주법(五字呪法)이라고 한다. 문수의 ‘아라파차나’이 5자 다라니로 삼매를 수행하는 자는 반야바라밀다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며, 천변·일식·월식·병란 등을 피하는 수행법이다.

기도는 필시 깨침이 동반되어야 하는 수행이다. 일연은 생로병사(生老病死) 문제의 해결과 중생구제를 위해 부처에 귀의하여 정진한 지 22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학문과 수행 정진에도 뛰어난 승려였다. 그런데 31세의 청년 일연의 ‘문수를 향한 피지(避地) 발원’의 마음은 처음부터 평정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몽병이 곧 들이닥칠 수도 있는 절체 절명의 상황이었다.

처음 ‘문수오자주’로 호국을 염원하는 일연의 마음 기저에는 몽병들에 의해 황폐해지고 핏빛으로 물들어 버린 고려의 강역과, 몽골 기마병들에 의해 도륙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공포 두려움 고통, 즉 탐진치(貪瞋痴)를 기반으로 하는 의심과 분노 좌절 등의 번뇌로 오염되어 있는 부정(不淨)한 상태였을 것이다. 어쩌면 일연의 수도 일생에서 처음으로 불보살 불교 교리 등 자신의 신념과 믿음에 대해 시험 치르는 입장일 수도 있다. 부처와 보살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일연은 간절히 문수의 오자주를 주문하면서 아상(我相)을 깨트리며 피지처를 찾았다.

이렇듯 간절한 염원과 자신을 비우는 수행을 통해 일연은 드디어 문수보살의 현신을 보게 된다.<sup>8)</sup> 나아가 ‘무주북(無住北)’이라 일러주는 신이한 계시, 감응을 받게 된다. 계시는 종교의

6) Poussin, Louis de, ‘Atheism’,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

7) 황선명(1983), 《종교학개론》, 종로서적, p.124.

8) 이러한 면은 종교적 인격이 극도로 성숙하면 신을 볼 수도 있다는 ‘종교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종교로서의 신비주의는 기독교의 신비가 주로 그리스도와 의 비밀을 말하는 데 반해 영어의 미스티시즘(mysticism) 등 신비주의라고 번역되며 어원적으로는 (눈 또는 입을) 닫는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myein’

근원으로 이해되며, 가톨릭에서는 천계(天啓)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부터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사실이나 진리를 전달받는 것을 총칭하지만 하느님이나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직·간접적인 모든 것을 나타내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일연의 절박한 회개로 문수의 현신과 계시를 받은 이러한 정황은 무아로서의 깨침, 곧 득도의 길로 전진했음을 보여준다. 아직 ‘무주복’의 의미를 알 길이 없지만, 일연은 말로만 듣던 신이적 종교 체험으로 구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일연은 더욱 정진하였고, ㉠단락에서 보듯 한 해를 넘기며 묘문암에 거처하며 수행하고 있었는데, 작은 암자인 난야(蘭若)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1년 전 문수보살이 현신하여 기별했던 그 무주(無住)라는 이름의 암자였다. 그때 일연은 승경 및 대오(大悟)하였을 것이다.

암자 무주(無住)는 ‘거처함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아무도 무주라는 은둔처를 알 수 없다는 의미와 함께 탐진치로 물든 아상이 없는 장소, 즉 ‘무아(無我)가 거주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무주가 곧 수행 정진의 최상 도량임을 일연 자신이 부지불식간에 깨달았을 것이다.

일연은 무주에서 ‘생계(生界)가 불감(不減)하고, 불계(佛界)가 불증(不增)’이란 부처님 말씀을 참구(參究)<sup>9)</sup>하였다. 이에 대해 아래 인용문 《불설부증불감경(佛說不增不減經)》은 부처가 왕사성의 기사굴산에 있을 때, 사리불이 중생의 육도윤회의 괴로움과 그 증감에 대해 부처에게 묻자 부처가 설한 내용<sup>10)</sup>으로 일연이 참구한 내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해준다.

혜명(慧命) 사리불이 모든 중생들은 무시 이래로 6도(道)를 돌며 3계를 왕래하면서 4생(生) 중에 윤회하여 생사의 괴로움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중생의 모임과 바다에는 증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묻자**, 부처님이 설한다. 오직 여래의 지혜만이 오직 그것의 깊은 뜻을 관찰하고 지견(知見)한다. 깊은 뜻이란 제일의제(第一義諦)이다. 제일의제는 중생계이고 중생계는 여래장(如來藏)이며 여래장은 곧 법신(法身)이다. 법신은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며 끊이지 않고 다르지 않은 불가사의한 불법이며 여래의 공덕과 지혜이다. ... 이 법신이 무시 이래로 세간에 따라 파도가 치듯이 생사를 왕래함을 중생이라고 하고, **법신이 존재의 욕구를 버리고 10바라밀을 행하며 보**

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신비주의는 물질적인 세계로 초월한 통상의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 영의 세계를 중심한 철학, 교리, 가르침이나 신념이나 경험을 시사하는 것으로 신, 최고 실재, 우주의 궁극적 근거 등으로 생각되는 “절대자”를 인간이 자기의 내면에서 하나님 임재의 직접적이며 친숙한 의식을 통해 체험하려는 입장을 말한다. 또한 자기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과의 합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로부터의 탈각, 자기라는 틀의 돌파를 통해서만 현성하려고한다. 조덕영 박사의 창조신학, 〈성경의 신비와 종교로서의 신비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크리스천투데이 2018.01.31.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09001>

9) 화두 그 자체에 대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구현 혹은 체험이며, 간화선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화두참구이다. 즉 화두를 간택하여 그 화두를 참구함으로써 해서 간화선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월암(2007), 〈한국 간화선과 화두참구의 계승〉, 《보조사상》 27, p.42.

10) 《불설부증불감경(佛說不增不減經)》 한역 김달진: 중국 원위(元魏) 보리유지(菩提流支, Bodhiruci) 번역

리행(菩提行)을 닦는 것을 보살이라고 한다. 또한 법신이 번뇌의 때를 떠나 청정함을 얻고 피안(彼岸)의 청정한 법 안에 머무르면서 자재한 힘을 얻는 것을 여래라고 한다. 그러므로 중생계를 떠나지 않고 법신이 있는 것이며, 법신을 떠나지 않고 중생계가 있는 것이므로 중생계가 곧 법신이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설하고 사리불에게 ...마땅히 이 법을 배워서 중생을 교화하라고 설하였다.

‘생계불감, 불계불증’은 ‘중생이 사는 현상적 세계는 줄어들지 아니하고, 본질적 세계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선문의 화두 중 하나이다. 이러한 화두로 또 한 번 번뇌와 의심과 자신의 탐진치를 바라보고 비우며 공부를 한 과정은 마치 진표의 망신참법(亡身懺法)과도 같을 것이다.<sup>11)</sup> 드디어 어느날 일연은 홀연히 활연유오(豁然有悟)하였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삼계가 꿈과 같음을 알고 보니, 대지에 터럭 하나 만한 장애함이 없다”고 하였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미혹되어 중생의 삶이 고통임을 착각하다가 절차탁마하여 전미개오(轉迷開悟) 하니 삼계가 다 하나임을 깨달은 일연이었다.<sup>12)</sup> 이후 일연은 중생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 자세한 것은 다음 장에 논하기로 한다.

깨침 이후 일연은 ‘실천 수행’을 위해 저술 및 교화에 주력하였다. 1249년(고종36)~1260년(원종1)까지는 일연의 ① 남해 주석, 저술 시기로 1249년에 최우의 조카인 정안(鄭晏)의 초청으로 남해 정림사의 주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곳의 분사대장도감에서 대장경 간행사업에 참여하였다. 당시 고려 중앙정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정안은 국가 권력의 중심부에 있다가 최우의 횡포를 피해 남해로 은퇴하여 정림사를 짓고 일연을 초대해 온 것이다. 그런데, 최항이 집권하며 정안은 다시 벼슬했고, 1251년 사석에서 최항을 비판한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sup>13)</sup>

이를 두고 일연의 후원자인 정안이 당대 권력의 핵심에 있다가 정치적 바람을 타고 비참한 일생을 마감했을 때, 일연이 받은 충격은 상당했으리라 보이며, 일연으로서는 정치의 쓴맛을 본 첫 경험이었다(고운기, 2010, 180)고 하였다. 그런데 이미 일연은 불교 교화를 위해 풍진 세상에 섞여 있지만, 성속(聖俗)에 얽매이지 않는 수행자였기에 정치의 쓴맛을 보았다기보다는 인연자의 뜻하지 않은 변고에 대해 연민의 감정이 일었을 것이다. <피은> 제8 ‘포산이성(包山二聖)’조에 관기와 도성 두 스님의 미덕을 찬한 시에서 일연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sup>14)</sup>

11) 망신참법: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참회방법. 의해 제5 ‘진표전간(眞表傳簡)’조 참고.

12) 김상현은 일연이 비슬산에서 수행에 몰두하던 20여 년의 시기를 두고 소극적으로 잠적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잘못이라고 했으며 이 시기는 일연의 나이 20, 30대에 속하던 때이고, 철저히 자기 충실에 몰두하던 시절이라고 하여 본고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김상현(1986), <일연 불국토 꿈꾼 민중사관의 선각자>, 《광장》 6월호 p.199.

13) 《고려사》 권100, 열전 제13 정세유 부(附) 안전(晏傳).

14) <피은> 제8 ‘포산이성’조 : 자초 싹과 등굴레 뿌리로 배를 채우고 입은 옷은 나뭇잎이지 베옷이 아닐세. 찬바람 뽕뽕 불고 돌은 험한데, 해 저문 숲속에서 나무꾼 돌아오네. 깊은 밤 밝은 달 아래에 앉았노라면 반쯤 열려진 옷깃, 바람 따라 나는 듯. 해진 부들자리 깔고 누워 잠들면, 꿈속에서도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다네…(紫茅黃精○肚皮 蔽衣木葉非蠶機 寒松颯颯石磴确 日暮林下樵蘇歸 夜深披向月明坐 一半

그리고 1258년 김준과 유경에 의한 무오정변으로 최씨 정권은 몰락했다. 1259년 일연은 선종의 가장 높은 법계인 대선사(大禪師)가 되었다. 그리고 일연은 자신의 깨달음과 교학적 수련을 위해 여러 전문 불경서 저술작업에 몰두하며 정진하였는데 그중 현전하는 것이 《중편조동오위》 2권이며, 이 책은 일연의 선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귀한 문헌이다.

1261년(원종2)~1274년(원종15)까지는 일연의 저술 및 교화기 중 ② 사찰 교화 시기로 56세인 일연은 1261년(원종2)의 부름을 받들어 선월사에 잠시 주석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남환(南還)을 요청하여 오어사(吾魚社) 인홍사(仁弘社) 운해사(雲海寺) 등에서 설법을 펼쳤다. 이에 학려(學侶)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sup>15)</sup>고 한다. 이 시기에 일연은 후학(승려) 양성과 사찰을 중창하는 등 부처의 뜻인 중생구제를 위해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1275년(충렬왕1)~1289년(충렬왕16)까지는 일연의 저술 및 교화기 중 ③ 국존 책봉 및 입적 시기이다. 1277년~1280년까지 일연은 왕명에 의해 청도 운문사(雲門寺)에 주석하며 선풍(禪風)을 크게 일으켰다. 이때 《삼국유사》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1281년에는 일본 원정군을 독려하기 위해 경주에 행차한 충렬왕을 모시고 위로하였다. 1282년에는 충렬왕에게 선(禪)을 설하고 왕명으로 개경의 광명사(廣明寺)에 주석하였다.<sup>16)</sup> 왕은 이같이 일연을 불러들이기도, 또는 직접 찾기도 하였다.

1283년 일연의 나이 78세 3월에 국존(國尊)으로 책봉되어 원경충조(圓經冲照)의 호를 받으며, 왕에게 구의례(摠衣禮)를 받았다. 국존으로 책봉된 사실은 개인적 차원의 영예라기보다는 전 교단의 중심세력으로 부각되었음을 의미한다(채상식, 2001: 127). 한편, 국사였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일연은 정치적 인물이었다고 해야 옳다(고운기, 2010: 5-30)는 견해가 있다.

원종, 충렬왕 등을 모시고 불법을 펼친 일연의 이러한 행적은 1280년 일본 동정으로 전함제조와 군량조달을 어려워하는 백성들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한 승려 충지(冲止, 1226년~1293년)와<sup>17)</sup> 같은 해 충렬왕의 과도한 사치와 측근 세력의 발호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림으로써 파직이 된 이승휴(李承休, 1224년~1300년)와 비교되는 모습이다.<sup>18)</sup>

그러나 일연은 중생구제를 위한 눈으로 당시 고려의 정치 내부에 직접 들어가서 살폈으며,

颯颯隨風飛 敗蒲橫臥於愁眠 夢魂不到紅塵羈...

15) 일연이 주맹(主盟)이 되어, 낮에는 금문(金文)을 독송하고, 밤에는 종취(宗趣)를 담론하니, 제가(諸家)들이 의심하던 바를 스님께서 모두 해박하게 부석(剖釋)하였으니,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이 유연하여 핵심적인 뜻이 귀에 속속 들어와서 경복(敬服)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16) ‘迎僧見明于內殿’(《고려사》, 충렬왕 8년 10월)과 ‘王與公主, 幸廣明寺, 訪僧見明’(《고려사》, 충렬왕 8년 12월)

17) 《원감국사집》, 海東曹溪第六世圓鑑國師謬頌 侍者 錄, 詩, ‘嶺南艱苦狀 二十四韻庚辰年造東征戰艦時作’, “... 官說竟難免. 軍租安可蠲. 瘡痍唯日甚. 疲瘵曷由痊. 觸事悉堪慟. 爲生誠可憐. 雖知勢難保. 爭奈訴無緣...”

18) 조정철(2021), <일연 사상의 고유성과 특수성>, 《불교철학》 9, p.85. 참조.

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고려 왕권은 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었고, 왕 또한 백성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 없었으며 원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 고려가 또 흔들리고 있음을 보았다. 즉 가지산문 교단의 거목으로 승단이라도 깨닫게 하기위해 왕명에 응하기는 하였지만, 수성(守成)도 경장(更張)도 할 수 없는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일연이 국존으로 추대된 그해 가을 95세인 노모에 대한 효를 하기 위해 낙향을 선택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1284년(충렬왕10년) 경상도 군위 화산(華山) 인각사(麟角寺)로 내려왔다. 이 시기에 《삼국유사》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연은 인각사에서 당시의 선문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구산문도회(九山門都會)를 두 번 개최하였다. 총림의 성황(盛況)이 근고(近古)에 비길 데 없었다. 일연은 1289년(충렬왕 15)에 인각사에서 84세로 입적하였는데, 7월 8일 새벽에 단정히 앉아 문도들과 선문답을 하다가 금강인을 맺고 입적하였다고 한다.

이상 몽골의 병화와 무신집권기의 혼란한 시기에 일연이 포산에서 은둔했던 이유는 ‘문수오자주’를 통해 호국을 기원하기 위함이었고, 이 시기에 중생구제를 위한 자각과 깨침의 과정이 있었기에 포산 은둔 이후 저술·교화를 통해 종교지도자로 거듭나는 일연을 만날 수 있었다.

### III. 일연이 지향하는 불국토의 세계

어린 시절부터 의표가 단정하고 우행(牛行)하고 호시(虎視)하는 모습이었던 일연은 9세에 출가하여, 14세에 구족계를 받고, 22세에는 최고 고시인 선불장(選佛場)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했다. 이후 포산으로 옮겨 은둔 수행할 무렵 몽골의 고려를 향한 침략이 개시됐다. 일연의 생애에서 가장 중대한 전환이 바로 시기에 일어났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깨침의 시기’를 통해 일연은 무엇을 깨닫고 보았는가. 그리고 그는 중생들을 위해 어떠한 모색을 하였는가. 일연이 깨치는 과정을 다시 <표 2>로 도식하였다.

<표 2> 일연의 서원(誓願) 그리고 조력자 문수보살  
<Table 2> Iryeon's pranidhana and his helper, Manjushri

| 주인공 | 동기 및 행동                                                                                                                                                        | 조력자                                            |
|-----|----------------------------------------------------------------------------------------------------------------------------------------------------------------|------------------------------------------------|
|     | 1236년 가을에 병란(兵亂)이 있어 피할 곳을 찾고자 문수오자주를 염(念)함.                                                                                                                   | 문수보살<br>▶ 홀연히 벽 사이에서 문수보살이 나타나 ‘무주북(無住北)’을 일러줌 |
| 일연  | - 1237년 암자 북쪽에 ‘무주’를 발견 곧 문수보살이 현신하여 기별함을 깨달음<br>- ‘생계불감, 불계불증’이라는 부처님 말씀에 참구하다가 홀연히 활연유오함.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삼계가 꿈과 같음을 알고 보니, 대지에 터럭 하나 만한 장애함이 없다”라고 함. |                                                |

<표 2>에서 보듯 일연이 한창 수도 정진할 시기와 몽골에 의한 병화가 맞물렸다. 그는 호국을 위해 전쟁 등을 택하는 대신 ‘문수오자주’로 염원하며 피지처를 찾았다. 아상을 깨는 간절한 염원을 통해 조력자 문수보살의 현신을 보게 되었고, 나아가 ‘무주북(無住北)’이라 일러주는 신이한 계시, 감응을 받게 된다. 그리고 ‘생계불감, 불계불증’을 참구하여 육도윤회의 괴로움과 그 증감에 대해 깨치게 되고 삶과 죽음에 장애 없음을 깨치게 되었다.

오강남·성해영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임스(William James, 1842년~1910년)의 신비체험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불가형언성, 둘째, 앎의 특성: 궁극적 실재에 대한 체험적인 앎, 세 번째는 수동성이다. 즉 궁극적 깨달음은 개인의 의도나 의지를 완전하게 비운 방심의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다. 네 번째는 일시성이다. 즉 신비적 합일은 일시적인 상태이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sup>19)</sup>.

신비체험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계를 따라 점차로 전개되며 심화한다. 이러한 정신적 전개의 과정은 신비 수행에 알맞도록 사다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신비의 사다리(the mystical ladder)’라고 불린다. 이러한 사례는 동서를 막론하고 종교 신비주의에서 널리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불교에서의 계-정-혜(戒定慧)의 ‘3학(三學)’도 일종의 신비의 사다리를 표징한다. 그중 혜는 ‘번뇌를 끊고 사물 등 일체의 진실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는 것’으로, 깨달음을 통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표 2>를 통해 보듯이 일연이 피지처를 찾는 동기와 ‘문수오자주’를 통한 염원 그리고 자신을 비우는 종교적 체험 속에서 ‘생계(生界) 불감(不減), 불계(佛界) 불증(不增)’을 통해 홀연히 궁극의 도달음이라 할 수 있는 활연유오(豁然有悟)를 한 것이다. 즉 일연은 고려 위기의 시기에 철저하게 호국을 위하여 정진하고 있었다.

1227년 22세의 일연은 포산 은둔 10년 후 32세인 1237년에 이같이 활연대오하였고, 삼중대사(三重大師)로 임명이 되었으며 이후 그의 수행은 더욱더 깊어져 갔고 시절은 갈수록 험악해져 갔다. 1238년(고종25) 몽골군이 경주에까지 이르러 황룡사 9층 목탑을 불태웠고 장육존상(丈六尊像)과 전우(殿宇)가 모두 불탔다.

이러한 찢절한 소식에도 일연은 포산에서 12년을 더 머물며 뚜렷한 행적은 남기지 않고 있다. 활연대오를 경험한 일연에게 성숙은 글자일 뿐 산속이나 속세에서 민중과 호국을 위함은 같은 것이다. 개인의 해탈은 수련의 목적이 아니다. 중생을 구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일연은 ‘중생이 사는 현상적 세계는 줄어들지 아니하고, 본질적 세계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통해, 백성의 고통은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권력층<sup>20)</sup>과 중생구제보다 자기 구

19) 오강남·성해영(2012),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북성재, pp.27-35.

20) 최이와 최항의 전횡이 극에 달하다가 1257년 최의(崔瑄)가 계승하였는데, 《고려사》에 변란의 화가 극심하고, 도성 안에 굶주린 백성들 가득하여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제에 절실했던 승려들에게 정문일침(頂門一針)이 필요했으며, 삶 자체가 괴롭고 고달픈 중생들에게는 현생의 괴로움을 승화시켜줄 실천의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바로 이러한 판단으로 일연은 문도와 함께 《삼국유사》에 대한 구상과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했을 것이다.<sup>21)</sup>

일연은 단군 이래 삼국으로부터 내려온 연기(緣起)를 보았을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는 모화적인 정치이념과 중화론적 문화정책으로 그 본연의 전통성을 상실해가고 있던 시기였다. 고려 전기 불교 세력과 문벌 귀족들의 관계에서 부패의 온상으로 치달았다가 이것이 60년의 무신정권을 불러오게 했으며, 왕권의 약화, 사회 질서의 문란으로 각종 민란과 봉기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몽골 세력을 업은 원종과 그 일파의 거사로 무신정권이 몰락하고 왕정은 복구되었지만, 고려는 원나라의 압박 아래 놓이게 되었다. 권신들은 또 원에 편승하여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 호국과 중생을 위한 불교계는 정치에 기대어 부패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 이 땅의 강역뿐만이 아니라 정신 또한 문화사상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진단하니 각계각층의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불경보다는 상고대의 《삼국유사》를 통해 불교 설화 등의 다양한 이야기로 불국토의 나라를 수성(守城) 또는 경장(更張)하여야 했다. 우리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신성함을 들려줌으로써 자주성 회복의 정신을 희망과 자신감을 넣어주어야 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삼국통일의 꿈을 이룬 신라, 그 꿈을 이뤄낸 선덕여왕의 집념의 표상인 9층 탑의 소실은 불국토가 이루어질 나라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우선 부처님의 가호가 있는 불국토의 나라임을 상징하는 황룡사 9층 탑을 찾았다<sup>22)</sup>. 다행히 황룡사<sup>23)</sup> 터에는 아직 부처가 강연했던 가섭불 연좌석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부처의 빛이 가려진지 몇 해인지 모르지만, 오직 연좌석은 의연히 남아있구나. 뽕나무밭이 몇 번이나 푸른 바다로 변했건만, 우뚝한 모습은 오히려 옮겨지지 않았네<sup>24)</sup>”라고 찬하며 다시 한번 고려가 불국토의 나라임을 상기하며 불국토 중흥을 다짐한다.

이 사는 곧이 부처 세상이요, 민중이 곧 부처이며, 그리고 깨달은 자들은 본래 지닌 불성을

21) 종교 의례나 기도가 대항적(對抗的) 종교 행위라고 한다면, 수행(修行)은 대자적(對自的) 종교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대자적 종교 행위로서의 수행은 일종의 자기-변혁의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즉, 신체를 단련하든 정신을 단련하든 아무튼 종교심을 강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황선명, 1983, 99).

22) 《삼국유사》 탑상(塔像) 제4 “연좌석은 불전 뒷면에 있었다. 내가 일찍이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돌의 높이가 5~6척이 되고 그 둘레는 겨우 세 아름인데 우뚝 서 있었고 그 위는 평평하였다. 진흥왕이 절을 세운 이래로 두 번이나 불이 나 돌이 갈라진 곳이 있었다. 절의 승려가 석을 붙여서 돌을 보호하였다.”

23) 황룡사는 전불시대(前佛時代) 7처 가람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일곱 개의 절이란, 《삼국유사》 흥법(興法) 제3 ‘아도기라’조(阿道基羅條)에 나오는 아도가 고구려인인 그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전불시대의 가람터를 말한다.

24) 《삼국유사》 탑상 제4 ‘가섭불 연좌석’조, ‘惠日沈輝不記年 唯餘宴坐石依然 桑田幾度成滄海 可惜巍然尚未遷’

모르는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점, 현재 삶의 터전이 전불(前佛)이 살던 곳이며 지금도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인식이 불국토 신앙이다. 이는 왕권 강화와 결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생이 곧 부처라는 인식 아래 중생이 살고 있는 터전 자체가 불국토라는 인식이다.

그렇다면 일연이 생각하는 불국토의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신라 삼국통일의 정신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sup>25)</sup> 신라 삼국통일 당시 불교에 대한 신심(信心)은 임금과 왕비가 술선수범함에 따라 하층의 노비로까지 확산되었다. 이 땅이 바로 불국토요, 이 백성이 다름 아닌 진신의 부처였다. 상하귀천을 따지지 않는 염불과 독경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고, 천년 왕국을 건설했다. 즉 상하 조화의 결실인 것이다.

이즈음 되어서 《삼국유사》에 ‘신이(神異)’가 등장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즉 일연이 직접 고려 중생을 위한 기도와 간절한 염원을 통해 문수보살의 감응 신이를 직접 체험했기에 《삼국유사》 건국시조에 괴이(怪異)가 아닌 신이를 서술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역사의 시원부터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불국토의 세계와 그 세계 속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삼국유사》의 서두를 장식하여 고조선이라는 민족의 기원을 밝히며 고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기이〉 제1 ‘고조선’조 ‘고기(古記)’의 환인과 환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고기’의 내용이다.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는데, 자주 하늘 아래 세상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자식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그래서 천부인 세 개를 주고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환웅은 3,000신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그곳을 신시라고 불렀다.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불렀다. 환웅천왕은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 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항상 환웅에게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였다. 이때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몸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삼칠일(21일) 동안 참아서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遣靈艾一 柱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而不得人身)

25) 《삼국유사》 탐상 제4 ‘가섭불 연좌석’조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였고, 웅녀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분을 ‘단군왕검’이라 한다.(熊女者 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 婚之 孕生子 號曰 壇君王儉)  
 왕검은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以唐堯卽位五十年庚寅[唐堯卽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 未實]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

‘고기’는 ‘인세를 탐하여 구하고자 하는’ 환웅의 동기로 시작된다. 일연은 한민족의 시원을 밝힘에 있어 환인에 대하여 ‘제석(帝釋)’이라는 불교 용어로 주를 달았는데, ‘제석’은 보편적으로 지고(至高)의 존재, 숭배의 대상임이 자명하다. 탐구인세하고자 하는 환웅의 의지, 그 뜻을 인정하고 조력한 아버지 환웅, 그리고 그 의지의 결정체인 국조 단군의 탄생으로 대단원을 이루고 있다. 고기의 내용은 신 환웅의 서원, 짐승인 곰과 호랑이의 소원, 인간이 된 웅녀의 소원 그리고 단군의 탄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의 주체는 환웅이며 아버지 환인의 조력으로 이루어진다. <표 3>을 보자.

<표 3> 환웅의 서원(誓願) 그리고 조력자 환인  
 <Table 3> Hwan-ung's pranidhana and his helper, Hwan-in

| 주인공 | 동기                                 | 행동                                                                                                                                                               | 조력자                                |
|-----|------------------------------------|------------------------------------------------------------------------------------------------------------------------------------------------------------------|------------------------------------|
|     | 자주 하늘 아래를 내려다 보고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하고자 함 | 아래 우뚝 솟은 세봉우리를 보니<br>∴ 天符印 3개를 주고 지상으로 가서 다스리게 함                                                                                                                 |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이해함<br><b>홍익인간 할만함</b> |
| 환웅  |                                    | - 3000신의 무리와 태백산(太伯山) 꼭대기 신단수(神壇樹)로 내려와 신시(神市) 건설<br>결과 - 환웅천왕으로서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 세상을 사물의 이치와 질서에 맞게 다스리고 교화함 |                                    |

위의 <표 3>에는 환웅이 지상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와 의지가 ‘삭의 천하(數意天下) 탐구인세(貪求人世)’로 표현된다. 아버지 환인은 환웅의 의지가 실현될 장소 삼위태백을 내려다본다. 삼위태백은 환인이 환웅의 의지 실현을 위해 선택한 장소로서 환인이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장소라고 판단한 선택된 공간이다.

환웅의 탐구인세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닌 소명 의식이며 서원에 가깝다. 아버지 환인은 환웅의 탐구인세의 동기가 홍익인간하기 위함임을 알고 이를 위해 천부인을 주며 재세이하하라고 하였다. 이 부분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일연은 환웅을 통해 위정자의 자세는 기

본적으로 백성의 안녕과 권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환인과 환웅을 통해 상하 위계질서 속에 있는 위정자들이 백성과 나라를 위한 올바른 목표를 갖고 상하 소통 및 화합으로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고려의 선조는 바로 그러한 훌륭한 민족성과 세계관을 가진 민족임을 시사하고 있다.

환웅은 신사에서 홍익인간과 재세이화로 인세를 다스린다. 그런데 환웅이 탐구인세하고자 하는 ‘인세’와 홍익인간에서 ‘인간’의 범위는 ‘지상의 자연, 동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며 이들을 구하고자(탐구)하고 이들을 널리 이롭게(홍익) 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한 근거로는 바로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첫 주인공으로 곰과 호랑이라는 동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의 육도윤회관으로 볼 때 동물이 사람이 되거나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래 <표 4>를 보자.

<표 4> 곰과 호랑이의 소원 그리고 조력자, 환웅  
<Table 4> The wish of a bear and a tiger and their helper, Hwan-ung

| 주인공     | 동기        | 행동                                                                                                                                              | 조력자                                                                                                                                                               |
|---------|-----------|-------------------------------------------------------------------------------------------------------------------------------------------------|-------------------------------------------------------------------------------------------------------------------------------------------------------------------|
| 곰 · 호랑이 | 사람이 되고 싶음 | 신 환웅에게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늘 기도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줌</li> <li>➡ 쑥과 마늘을 먹기</li> <li>➡ 100일간 동안 햇빛을 보지 않기</li> <li>∴ 사람의 몸이 되어 있을 것임</li> </ul> |
|         |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먹음.</li> <li>➡ 1. 곰은 삼칠일(21일) 동안 참아서 여자의 몸이 됨</li> <li>2. 호랑이는 참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함</li> </ul> |                                                                                                                                                                   |

앞의 <표 3>에서 환웅이 홍익인간이라는 무아의 서원을 갖고 있다면, <표 4>에서의 곰과 호랑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원을 갖고 있음을 변별해야 한다. 이로써 위정자는 정사를 펼침에 있어 사사로움과 편견을 배제해야 하는 존재여야 하며, 백성은 그에 비해 자신을 위해 모사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환웅은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홍익인간하되 재세이화(在世理和)하여야 했다. 리(理)는 원래 옥의 원석을 이롭게 사용하기 위해 고운 결로 갈아내는 일인데, 나중에 일을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고, 철학적 개념으로 발전하여 ‘사물에 내재하는 원리’, ‘우주의 근본이 되는 도리’ 따위를 지칭하게 되었다. 즉 재세이화는 만물을 이치와 원리, 질서대로 다스려서 '제반 사물이 마땅한 상태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환웅이 사물의 이치와 질서에 맞게 다스리고 교화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곰과 호랑이, 그들이 갖고있는 신체적 조건은 다르지만, 축생임에는 한가지이다. 이들은 축생

에서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즉 계층(사회적)의 이동, 신분 상승을 환웅에게 소원하였다.

곰과 호랑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환웅은 이들에게 인간이 될 조건이며 통과례로써 ‘쑥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며 먹으라고 한다. 호랑이는 21일을 못 견뎠고, 곰은 21일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고 사람이 되었다. 동물과 인간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모든 생명현상은 영과 육이라는 두 개념으로 분리된다. 곰과 호랑이 중에 곰은 곰의 몸체에서 인간이라는 몸으로 탈바꿈하였다. 몸과 정신에서 정신 활동이 우위를 선점한 것이다.

인간에게 성선설, 성악설, 이타주의, 이기주의, 욕망, 이성, 언어 등 인간 본성의 구체적 속성들에 관해 합의된 관점은 없다. 또 인간은 자연스럽게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본능을 넘어서 욕망과 욕구가 있고 충동이 있다. 그런데 인간은 짐승과는 다른 ‘도덕성’이 늘 요구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짐승과 구분되는 성품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서 신 환웅은 조력자이며 그들의 정당한 욕망의 발현을 위해 재세이화, 시험을 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과 동기의 출발선은 동일하여도 그 결과가 다른 이유는 뚜렷한 입지(立志) 및 자아 성취 욕구와 인내심·자제력’의 차이 때문이다. 즉 조력자가 있더라도 소원을 이루려는 자의 입지와 노력 실행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한다. 곧 이 단락에서 일연은 위정자가 공평무사해야 함과 백성들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되 일부러 조작하지 않는, 즉 자발적 능동적 개입이어야만 사회 구성원 속에서 값있고 더 나은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도 전해주고 있다.

인간이 된 웅녀는 또 다음과 같은 소원을 빌고 있다. <표 5>를 보자.

<표 5> 웅녀의 소원과 그의 조력자  
<Table 5> The wish of Woognyo's & her helper, Hwan-ung

| 주인공 | 동기      | 행동                                                                 | 조력자                    |
|-----|---------|--------------------------------------------------------------------|------------------------|
| 웅녀  | 혼인하고 싶음 |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소원을 빔 呪願有孕                                 | 환웅은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함 |
|     | 결과      | 웅녀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단군왕검’이라고 부름<br>- 왕검은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조선(朝鮮)’을 건국 |                        |

<표 5>와 같이 웅녀는 또 한 번의 성장을 원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라고 했다. 왜 인간이 왜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한 것일까? 그것은 생존과 자아실현을 위해서이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 인간이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첫걸음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언어와 의사소통, 그리고 윤리적 실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즉,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만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고,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사회

적 동물이다.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은 공동체, 즉 사회 안에서만 발현될 수 있다.

웅녀도 본능적으로 가정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웅녀의 소원은 천신 환웅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우리 민족의 건국 시조인 단군을 낳게 되었다.

이제까지 환웅의 탐구인세하고자 하는 의지와 서원으로 삼위태백에 강세하여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뜻을 곰과 호랑이를 통해 구현하는 모습을 살폈다. 이를 통해 <표 6> 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자아실현에 따른 지위 변화 모습  
<Table 6>Changes in status according to self-realization

|                           |               |   |    |   |                |   |                                   |   |                |   |        |
|---------------------------|---------------|---|----|---|----------------|---|-----------------------------------|---|----------------|---|--------|
| 환웅//환인                    |               |   |    |   |                |   |                                   |   |                |   |        |
| 신<br>↓<br>신성을 갖춘<br>인간(신) | 곰             | ⇒ | 웅녀 | ⇒ | 신성과<br>의<br>혼인 | ⇒ | 단군왕검<br>↓<br>신성을 갖춘<br>(인간: 신+동물) | ⇒ | 고조선<br>↓<br>건국 | ↑ | 산<br>신 |
| 홍익인간<br>재세이화              | 인격적 성장 도야의 모습 |   |    |   |                |   |                                   |   |                |   |        |

<표 6>은 환웅이 홍익인간의 서원을 품고 지상에 하강했을 때 곰과 호랑이를 만났고, 그중 곰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하여 인내를 통해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사람이 된 웅녀는 결혼이라는 성장을 바랐고 그것을 환웅이 이루어주게 된다. 나아가 단군왕검이 탄생할 수 있었고, 그 단군왕검은 고조선이라는 국가를 건설하여 다스리다가 산신이 된다.

여기에서 일연이 생각하는 불국토 세계를 짐작할 수 있다. 환인은 본질의 세계에 있는 지고의 존재 부처이고, 환웅은 이 땅의 중생을 다스리는 군왕, 곰과 호랑이는 이 땅의 중생을 표현함이며 이들의 선 순환의 구조, 홍익인간의 정신과 상하에 대한 믿음, 자아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상생 조화의 정신이 구현된 세계가 바로 일연이 바라던 불국토의 세계이다.

단락 Ⅱ에서 일연은 최씨 무신정권과 몽골의 병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고려를 위하여 포산에서 은둔 수행했다. 그리고 ‘중생이 사는 현상적 세계는 줄어들지 아니하고, 본질적 세계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참구를 통해, 자신은 현생과 부처의 세계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에 생사고락에서 해탈하였다. 그러나, 탐진치로 신음하는 임금을 포함한 중생들에게 현생의 괴로움을 승화시켜줄 방법과 실천의 방법을 찾는 것이 화급했다. 현실에 구현된 불국토 세계를 찾는 것이 답이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우리 역사 기록에서 빠진 삼국과 가락국(駕洛國 : 가야)의 고조선 이하 여러 국가의 흥망·신화·전설·신앙 및 역사, 불교에 관한 기록, 고승들에 대한 설화, 효행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삼국유사》에 담아냈다. 그리고 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조의 환인과 환웅에게서 불국토 건설을 보았고 그 가치관을 찾았다. 일연은 군군신신(君君臣臣) 부부자자(父子子子)하지 않는 고려의 모든 중생에게 변화의 답을 주었다. 위정자로서 군신으로서 승려로서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국난의 위기에 처했지만, 다시 돌이켜 환인과 환웅을 본받아 각자의 위치로 복귀한다면 불국토 세계는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자 하였다.

일연은 고려가 비록 지금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지만, 중국과 대등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자, 고조선을 건국한 천신의 자손이며, 탐욕이 없는 소통과 화합하는 민족이며, 끈기가 있는 민족 그리고 현실 만족보다는 늘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민족이기에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고려가 지향해야 할 이념을 제시하고자 하는 발로로써 《삼국유사》를 찬술했음을 알 수 있다.

#### IV. 결 론

고려 후기의 고승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一然, 1206~1289)은 스테디셀러 《삼국유사》의 찬술자이다.

본고에서는 일연이 통찰한 깨달음으로 중생제도를 위해 노력했던 종교인임을 논했으며, 불국토가 현현(顯顯)된 세계와 그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간 일연과 《삼국유사》에 대한 훌륭한 업적들이 나왔으나 학문적 피상적으로 일연을 바라보았기에 내·외침의 극성기였던 고려 후기의 무간지옥과 같던 시절, 일연이 일국의 사표로 존경받고 있었으며 뻗속 깊이 종교인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무신정권과 몽골 침입의 극성기에 포산에서 은둔 수행했던 일연의 행적을 고찰하였다. 수행 정진에 뛰어나 칭송을 받던 31세의 일연은 몽골군이 목전에 온 상황에서 국난 타계를 염원하기 위한 피신처를 찾았다. ‘문수오자주(文殊五字呪)’로써 염원했으나 처음에는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는 의심과 분노 좌절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부정(不淨)한 상태였다. 그러나 아상(我相)을 깨는 절차탁마의 정진 끝에 감응 경험을 하게 되며 ‘생계(生界)가 불감(不滅)하고, 불계(佛界)가 불증(不增)’을 참구하여 활연대오하게 된다. 이러한 득도 체험이 그의 수행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중생구제를 위해 유력(遊歷), 저술, 교화 등으로 실천 수행하며 종교지도자로 거듭난다.

득도 체험은 보통의 승려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 또한 일연의 은둔 득도의 시기가 국가 위기의 시기였기에 타인의 눈에는 소극적 위선적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피지처를 찾은 이유’와 ‘참구의 문구’는 자신의 수행과 득도하기 위함이 아닌 중생구제와 국난

타계의 방법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그가 절실함으로 염원했고 마침내 깨침에 이르러 “삼계가 꿈과 같음을 알았고, 대지에 터럭 하나 만한 장애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한 깨침 이후 일연은 10여 년 이상을 포산에서 더 머물다가, 포산에서 나와 권력 핵심에 있던 정안에 의해 정립사의 주지가 되었고, 원종과 충렬왕의 부름에 응한 몇 번의 상경, 그리고 국사로 책봉되었다. 이러한 행적들은 중앙정치와 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에 그를 정치적 인물로 오해하게 한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고려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안 사람이었다. 그러하기에 시대적 흐름에는 동참하되 저술, 교화 등 당시 승려 등을 깨우치기 위한 불교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다. 즉 포산에서의 22년간 수행은 일연을 성숙에 장애없는 승려로 발돋움하게 하였다.

일연의 고려 중흥과 중생구제 및 불국토 건설을 위한 수행 정진의 모습은 《삼국유사》 전체를 관통하며, 그 수행의 귀결은 ‘고조선’조의 ‘고기’를 통해 나타난다.

그의 불국토의 이상(理想)세계는 환인과 환웅을 통해 드러난다. 아버지 환인과의 의논을 통해 ‘홍익인간할 만한 땅’에 내려온 환웅은 무아(無我)의 입장에서 상·중·하의 중생을 재세이화(在世理化)로 제도하는 영도자이다.

지상에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결핍을 해소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올바르게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중생인 축생 곰과 호랑이가 있었다. 이들은 환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며 인간이 되기를 도왔다. 곰은 사람이 되었고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과 동기의 출발선은 동일하여도 그 결과가 다른 이유는 뚜렷한 입지(立志) 및 자아 성취 욕구와 인내심·자제력’의 차이 때문이다. 즉 조력자가 있더라도 소원을 이루려는 자의 입지와 노력 실행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신 환웅은 조력자이지만 그들의 정당한 욕망의 발현을 위해 재세이화하는 인물이지 조장하는 인물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된 웅녀는 또 한 번의 성장을 위해 결혼을 소원했고 드디어 고조선 건국의 시조이자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낳게 된다.

환인은 지고의 존재 부처이고, 환웅은 중생을 제도하는 군왕, 곰과 호랑이는 이 땅의 중생을 표징한다. 환웅을 통해 바라본 위정자의 자세는 백성의 안녕과 권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환인과 환웅을 통해 상하 위계질서 속에 있는 위정자들이 백성과 나라를 위한 올바른 목표를 갖고 상하 소통 및 화합으로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상·중·하의 중생들은 자아실현의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 실천하는 모습, 이들의 기원(祈願)이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진정 조화로울 때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세계가 곧 일연이 회구하는 불국토의 세계이며 그의 가치관이다. 그리고 고려의 선조는 바로 그러한 훌륭한 민족성과 세계관을 가진 민족임을 시사하고 있다.

일연의 시대는 총체적으로 백성의 버리인 군왕과 군신의 도리가 상실된 시기였고, 도리어 힘 없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권 회복을 위해 위정자들에게 도전을 하거나, 세계 최강 몽골에 끌려가 항쟁하는, 상하 본분의 역할이 바뀐 국가적 암흑기였다. 그러하기에 일연은 《삼국유사》

를 통해 ‘임금과 신하가 편안하고 백성이 평화로울 수 있는 (君臣安泰 萬庶和平矣)’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고, 그렇게 되려면 우선 백성의 버리인 임금 즉 상부의 자각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피력하고 싶었을 것이며 아울러 백성의 낮은 자존감을 복돋워 주어야 했다.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역사서가 아닌 장편 영사시(詠史詩)로 〈동명왕〉 편을 지어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였듯이, 일연 또한 ‘遺史’가 아닌 ‘유사(遺事)’를 통해 투철한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 만인을 깨우치기 위한 종교인이며 지식인으로서, 민족의 자긍심의 증거이자 면면히 대를 이어 전해져도 손색이 없을 훌륭한 교훈서인 《삼국유사》를 찬술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물하였다.

현재 우리는 가장 밝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가장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이기도 하다. 13세기에 찬술된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관이 제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육자의 깊은 성찰이 더욱 요구된다. 한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꿈나무라고 학생들을 지칭은 하지만 과연 그들을 위한 교육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며 학생들이 꿈을 발견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동기와 의지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그 동기와 꿈에 대해 함께 조력(영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아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자체 인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실천 노력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여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종교인 일연이 서원했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삼국유사》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진일보에 기여하길 바라며, 21세기 현재 우리는, 피교육자를 바르게 인식하여 자아실현하도록 복돋움의 역할을 할 교육자(영도자)들 자신의 각성과 인격도야에 주력할 때임을 전망(展望)한다.

## References

<단행본> :

고려사

Goryosa(高麗史).

고려사절요

Goryeosa Jeolyo(高麗史節要).

불설부증불감경

Bulseolbujeungbulgamkyung(佛說不增不減經)

원감국사집

Wongam Guksajip(圓鑑國師輯)

황선명 (1983). 종교학개론 124, 서울: 종로서적

Hwang, S. M. (1983). *INtroduction to religion*. Seoul: Jongno Bookstore.

채상식(1988), 일연, 한국사 시민강좌2, 일조각.

Chae, S. S. (1988). *Citizen's lecture on Korean history*. Seoul : Ilchokak.

이지관(1997),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고려사4, 가산문고.

Lee, J. K. (1997).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사4*. Seoul : Gasanmungo.

일연, 권상로 역해 (2007). 삼국유사, 서울: 동서문화사.

Iryeon (2007). *Samgukyusa* (Kwon, S. R. Trans.). Seoul: Dongsuh Press.

일연학연구원 (2007). 일연과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

the Academy of Iryeon Studies. (2007). *Iryeon & Samgukyusa*. Gunwi: the Academy of Iryeon Studies.

오강남 · 성해영 (2012).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북성재.

Oh, K. N., Sung, H. Y. (2012), *Religion. It's realization now*. Seoul: Bukseongjae.

고영섭 (2016). 삼국유사인문학 유행. 서울: 박문사

Ko, Y. S. (2016). *Samgukyusa Inmunhak Yuhaeng*. Seoul: Bakmunsa.

한기문 (2020). 일연과 그의 시대 서울: 역락

Han, K. M. (2020). *Iryeon & the Age He Belonged to*. Seoul: Youkrak Books.

<학술지 논문> :

Jung, J. H (1978). A Tale about Guarding a Country and Its Birth Myth.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01, 39-60.

Chae, S. S. (1979). A Study on Ven. Bogakguksa Iryeon - In Relation to the Advent of Kaji-san

- Seon-sect(迦智山門).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26.
- Huh, H. S. (1986). The Buddhist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 *Journal for Buddhist History of Goryeo*, 322.
- Ko, W. K. (1993). <Naksan-edaesoung(洛山二大聖)> and Illyeonyon's Recognition of the World. *Journal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8, 28-49.
- Park, J. T. (1997). The Results and Problems of the Synthetic Study on Samgukyusa. *Journal of the humanities*, 16, 1-13.
- Cho, C. H. (1997). Iryeon and Yinyeon Temple. *Journal of Kyongsan Culture Research*, 2, pp.114-134
- Kim, S. H. (2001). The Historical View of Iryeon and Samgukyusa. *Studies of Korean Culture & Historical Figures: Wonhyo, Seolchong, and Iryeon*.
- Chae, S. S. (2001). Iryeon-Historical Context and Trace of His Life. *Studies of Korean Culture & Historical Figures: Wonhyo, Seolchong, and Iryeon*.
- Kim, D. J. (2002). The Life and Writings of Iryeon. *Chonnam Historical Review*, 19.
- Jung, J. I. (2003). The Qualifications of Applicant for Buddhist-Items(僧科) & the Raise of the Nine-sects of Seon. *the Korean Society for Seon Studies*, 6.
- Wolam (2007). Korean Ganhwaseon and the Succession of the Meditation on the Big question. *BOJOSASANG* (27), p.42.
- Ko, W. K. (2010). Political Sense in Iryeon's Writing - A Study of Narrative Method 『Samgukyusa』 2.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42, 5-30.
- Lee, I. J. (2016). A Re-Discussion of the Brotherly Alliance of Goryeo and Mongolia in 1219.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75, 100.
- Youm, J. S. (2016). A Review of Mañjuśrī(文殊)"s Teachings as Expounded to Jajang(慈藏) during His Trip to Chinese Wutaishan: Focus on the Differences between Iryeon(一然)"s and Minji(閔漬)"s Records. *Bulkyohakbo*, 76, 163-190.
- Ju, B. D. (2017). Iryeon's perception of history through SamgukYusa. *the Studies of Youngnam Culture*, 63, 127-162.
- Chae, S. S. (2017).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ompilation of Samgukyusa. *the Korean Society of History of Historiography*, 35, 31-54.
- Choi, M. H. (2017). The Ideal Characters of the Hongik inganbased Educational Thoughts and the Future Direction. *Journal of Dangun Studies*, (37), 281-311.
- Myeong, K. H. (2019). A Study on the Thought of Ven. Bogakguksa Iryeon. *The Korean Society of Pure Land Buddhism*, 32, 215-244.

- Woo, S. H. (2021). New Horizons in the Study of Ancient Philosophy, Religion, and Culture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Social Thoughts and Culture*, 24(2), 21-42.
- Choi, Y., Kim, J. D. (2021). “Samgukyusa(三國遺事)” from the Perspective of Ethnic Healing Focusing on the Chapter “Gii(紀異)”: A Tale about Guarding a Country and Its Birth Myth. *Culture and Convergence*, 43(4), 678.
- Jo, G. C. (2021). The Characteristic and uniqueness of Iryeon(一然) Thought - Focusing on Iryeon's life and 『SamgukYusa』(三國遺事) -. *Journal for the study of Buddhist Philosophy*, 9, 77-103.

<학위 논문> :

- Myung, J. S. (2016). *A Study of Ingak Iryeon(麟角 一然)'s Understanding on Eminent Monks - Focusing on the Chapter Titled Uihae (義解 the Explanation) in the SamgukYusa (三國遺事)*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Dongguk.

<인터넷 자료> :

- Cho, D. Y. (2018.01.31.).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ystery of the Bible and mysticism as a religion? Retrieved October 15, 2021, from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09001>